



예상치 못한 매력을 선사하는 제니스 X 루팡 3세 파이널 에디션

제니스와 애니메이션 루팡 3세가 만나 스위스 워치 매뉴팩처와 일본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특별한 파트너십을 선보입니다. 1969년 출시 직후 탁월한 영감을 선사했던 엘 프리메로는 두 차례에 걸쳐 이 획기적인 애니메이션 시리즈에 등장했습니다. 50주년과 두 번의 스페셜 에디션 출시에 이어, 제니스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리미티드 에디션인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루팡 3세 - 파이널 에디션을 선보이며 완벽한 트릴로지를 완성합니다.

2019년, Zenith는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최초의 시계를 출시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루팡 III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루팡 III의 장난기 가득한 파트너로 등장하는 다이ске 지겐은 Zenith의 A384 모델을 기반으로 한 블랙, 그레이 및 도금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오래된 시계를 착용하십시오. 이 시계는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Siegen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판다" 다이얼이 달린 Zenith 크로노그래프를 착용하고 다시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최초 방영일로부터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제니스는 2019년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루팡 3세를 출시하며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타임피스를 현실로 재현해냈습니다.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A384 토노형 케이스에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 독특한 블랙 다이얼을 구현해낸 제니스는 이듬해, 화이트 컬러의 "판다" 다이얼이 탑재된 두 번째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세 번째 모델이자 마지막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공개될 이번 타임피스는 두 개의 다이얼을 하나로 결합한 특별한 디자인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50피스 한정 출시는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루팡 3세 - 파이널 에디션은 두 개의 다이얼을 결합한 타임피스입니다. 비대칭 디자인 안에 서로 다른 개성이 돋보이는 두 개의 반원을 조합하여 애니메이션 시리즈 첫 번째 시즌의 첫 에피소드와 마지막 에피소드에 등장한 두 개의 제니스 크로노그래프를 하나의 케이스 안에 담아냈습니다. 한쪽은 첫 번째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루팡 3세 에디션의 세미 글로시 블랙 다이얼과 딥 그레이 카운터, 골드 컬러의 마커와 핸즈를 선보이고, 다른 한 면은 두 번째 에디션의 크리미한 화이트 다이얼과 대조를 이루는 "판다" 구성이 돋보이는 블랙 카운터 및 베이지 슈퍼 루미노바가 독특한 감성을 전합니다. 제니스 매뉴팩처에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을 선사한 독특한 다이얼은 특별한 의미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재치 있고 유쾌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다이얼의 특별한 디자인은 긴 시간 동안 섬세한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비어 있는 다이얼 전체를 실버 화이트 컬러로 마감한 뒤 오른쪽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블랙 크로노그래프 카운터를 밀링 처리하고, 다이얼의 나머지 부분에는 컬러가 없는 투명 래커 처리로 보호 효과를 더했습니다. 다이얼의 왼쪽 절반에는 블랙 컬러로 페인팅을 더하고, 화이트 컬러가 남아 있는 반대쪽 절반에는 보호용 레이어를 적용했습니다. 컬러가 다른 영역으로 번지면서 다이얼의 디자인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얼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 번째 그레이 컬러를 적용한 카운터를 완성하는 작업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제작 과정의 각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졌습니다. 다이얼은 단 하나만 완성하는 것조차 충분히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분리된 요소를 사용해 두 개의 다이얼이 있는 듯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은 그 탁월한 매력으로 힘든 도전을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마감된 다이얼은 1969년에 출시된 A384 케이스를 비올과 마감면에서 재현한 직경 37mm의 배럴 모양 티타늄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명성 높은 회사에서 디자인한 티타늄 사다리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Gay Frères는 독특한 복고풍 느낌을줍니다. 다이스케 지겐의 그림이 새겨진 사파이어 디스플레이 케이스백은 시계 내부에서 뛰는 엘 프리메로 자동 고주파 통합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 위치한 제니스의 오프라인 부티크 및 온라인 부티크에서 출시될 이번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루팡 3세 - 파이널 에디션**은 앞서 선보인 두 번의 스페셜 에디션을 아깝게 놓쳤거나 전체 세트를 완성하여 다이얼의 이중적인 매력을 즐기고 싶은 고객에게 특별한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로 현대적 의미의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과거와 현재의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제니스 시계에는 모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0.1초까지 측정 가능한 크로노마스터 라인과 0.01초의 정밀성을 갖춘 데피 컬렉션을 통해 더욱 정밀한 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대담한 도전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크로노마스터 리바이벌 루팡 3세 - 파이널 에디션

레퍼런스: 95.L384.400/50.M384

핵심 사항: 직경 37mm의 오리지널 1969 케이스. 오토매틱 엘 프리메로 컬럼 휠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앞서 출시된 2개의 에디션에서 영감을 받은 스플릿 다이얼. 2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400, 오토매틱. '코뜨 드 제네브' (Côte de Genève) 문양이 장식된 로터.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5Hz)

파워 리저브: 최소 5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9시 방향에 위치한 스몰 세컨즈. 센트럴 크로노그래프 핸드, 6시 방향의 12시간 카운터, 3시 방향의 30분 카운터. 타키미터 & 펄소미터 스케일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케이스: 37mm

소재: 브러싱 처리된 티타늄

다이얼: 블랙 & 화이트

방수: 5ATM

케이스백: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가격: 9,900 스위스 프랑

아워 마커: 로듐 도금 또는 골드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베이지 코팅

핸즈: 로듐 도금 또는 골드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베이지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티타늄 래더 브레이슬릿

